

Trump, 한국 대미 전략투자 공개. 이해득실과 KOSPI 영향력 판단

- 트럼프,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발표, 한국 정부와 이견 뚜렷, 쟁점 사항 주목
- 중간선거 전까지 관세 위험은 낮아졌지만, 쟁점 논의 및 과잉생산 301조 부과 남아
- 증시, 외환시장 영향력 제한적. 원전, 기자재, 가스터빈 등 수혜 예상

트럼프,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발표, 가스복합발전소, 원전, LNG

트럼프 대통령은 9월 30일 오후(미 동부시간, 한국시간 10월 1일 새벽) 백악관 집무실에서 러트닉 상무장관과 함께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3건을 공개했다.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6.5GW, 220억달러 이상), 대형 원전 8기(건설비 1,000억달러와 예비비 200억달러), 알래스카 LNG(500억달러 이상)다. 러트닉 상무 장관은 한국의 총 투자 규모가 2,000억달러에 육박한다고 했다. 한국 측 수치고 백악관 당국자 발언을 단순 합산하면 1,963억달러로 전략투자 한도 2,000억달러의 98%에 달한다.

15% 관세 상한 확인. 한국 정부는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소만 합의

새로운 관세 조치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관세 인하의 값을 치렀고 그 돈의 일부가 이 프로젝트에 들어간다고 말해, 투자가 15% 관세의 대가라는 기존 틀을 다시 확인했고, 관세 상한선이 15%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통상부도 같은 시각 3건의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확정 수준이 다르다. 한국이 투자를 결정한 사업은 텍사스 1건(223억달러)뿐이다. 원전은 4분기 검증을 거쳐 사업별로 결정하는 프레임워크이고, 알래스카는 검토에 착수한 단계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를 확정했다. 사업자 측도 자금 조달 완료시 즉시 착공 가능하며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설명했다.

사업 구성과 규모는 9월 22일 국회 보고와 9월 29~30일 외신 사전 보도로 알려진 범위다. 미국 발표의 새로운 내용은 원전 후보지 4개 주 언급, 알래스카 즉시 착공과 3년 공기 주장, 관세 15% 틀의 재확인 정도이다. 한국 발표에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존 합의문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원전 프레임워크에 들어갔다는 점이 새로 공개됐다. 시장이 기대하던 철강 50% 관세 완화나 15% 상한의 문서화는 없었다.

중간선거 전까지 관세 위험은 낮아져.

하지만, 쟁점사항 논의 및 과잉생산 301조 부과는 남아있어...

중간선거 전까지 한국을 겨냥한 관세 인상 위험은 낮아졌다고 판단한다.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9월 29일 과잉생산 301조 보고서 결과를 검토할 때 기존 합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의 발표와 한국 정부 간의 쟁점 사항이 뚜렷하다는 점은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당초 무역합의에서는 미국과 한국 간 합의된 투자건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 발표에는 합의되지 않은 원전과 알래스카 LNG 투자가 포함되었다. 협상, 논의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됩니다

한편, 과잉생산 301조 결과, 관세부과 여부도 남아있다. 추가 관세는 약 10% 수준이 거론되는데, 현행 12.5%에 그대로 더해지면 20%를 넘는다. 미국이 밝힌 대로 합산 15% 수준에서 묶이느냐가 수출주 전반의 관건이다.

301조(강제노동) 관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25개 주가 제기한 소송의 변론이 9월 30일 미 국제무역법원에서 진행됐다. 향후 판결에 따라 관세의 법적 근거가 다시 바뀔 수 있고, 그 경우 투자 약속과 관세 혜택을 맞바꾼 구조도 다시 논의 대상이 될 것이다.

KOSPI/외환 시장에는 중립. 원전, 기자재, 가스터빈 등 수혜 예상

이번 투자발표, 이후 집행 과정에서 자금 유출은 관리 가능한 규모로 판단한다. 연간 한도 200억달러는 7월 한 달 경상수지 흑자(420.8억달러)의 절반이 안 되고, 올해 송금은 최대 122억달러 안팎으로 거론된다. 환율과 금리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며, 향후 방향성은 연준의 추가 인상, 유가, 외국인 주식 매도가 정할 것이다. 다만 외화채 발행 확대와 국가보증채무 증가는 중기적인 부담 요인이다.

KOSPI 지수에는 중립적인 이벤트다. 업종별로는 원전 주기기와 기자재, 가스터빈과 배열회수보일러, 원전 시공, LNG 밸류체인이 수혜 쪽이다. 강관은 기대가 크지만 물량 선배정과 관세, 반덤핑 변수가 있다. 유틸리티(한국가스공사 = 장기 LNG 구매 압력, 한국전력 = 지분 참여와 재무 부담), 철강 대형주(50% 관세 유지)는 다소 부담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협상 과정, 그 결과가 중요. 일단은 중립 시나리오로...

이해득실에 있어 협상 과정과 그 결과가 중요하다. 트럼프 발표안을 단계적으로 수용하면서 알래스카는 수익성을 검토하고, 관세율 상한을 15%로 유지하는 경우가 무난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원전 부지와 계약을 확정하고, 한국 기자재 비중을 명시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구두로만 약속해왔던 철강 관세 완화와 15% 관세 상한을 문서화한다면 베스트 케이스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의 발표안을 모두 수용하더라도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만약 미국이 알래스카 확정과 연내 100억달러 송금을 압박하고 한국은 상업성과 국회 절차로 의사결정을 지연할 경우 리스크는 커질 수 있다. 트럼프가 과잉생산 301조 관세로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관세율은 일괄적으로 15% 상한을 넘기고 수출주 전반의 부담은 가중될 수 있다.

향후 한국 기업의 실제 수주, 연내 최대 100억달러 선금금의 집행처, 과잉생산 301조 관세 결과,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 등의 변곡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

그림 1.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공개 개요

항목	내용
일시	2026년 9월 30일(수) 15:30 미 동부시간 예정, 한국시간 10월 1일(목) 04:30. 국내 첫 속보는 05:31~05:35
장소와 형식	백악관 오벌오피스. 대통령 발표, 배석자 발언, 기자 질의응답
발표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배석	더그 버검 내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댄 설리번 상원의원(알래스카),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 웨스팅하우스·글렌파른·넥스테라에너지· 루이스에너지·릴레이티드 컴퍼니스 최고경영자
공식 문서	10월 1일 07시 30분 전후 재확인 기준 백악관 팩트시트와 행사 영상, 상무부 보도자료는 게재되지 않음
한국 측 발표	산업통상부가 10월 1일 06시 전후 3건의 추진계획 발표 (9월 22일 국회 보고 내용의 엠바고 해제)

자료: 국내외 주요 언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트럼프 발언 전문

오늘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에너지 인프라 투자 가운데 하나를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내 행정부가 대한민국과 맺은 합의 덕분에 한국 정부는 최대 2,000억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에 6기가와트(GW) 규모의 발전 시설을 짓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초대형 발전소입니다. 여기에는 신규 대형 원자력 발전소 8기 건설과, 오래 기다려 온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어서 훌륭한 주지사와 훌륭한 상원의원 댄 설리번을 비롯해 알래스카에서 많은 분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이 대규모 투자 패키지는 핵심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고,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을 굳히며, 한국과 태평양 지역 전체와의 파트너십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무역 합의에 따라 수천억달러를 투자해야 했고, 그 대가로 나는 관세

를 15%로 낮춰 주었습니다. 한국은 관세 인하의 값을 치렀고, 그 자금의 일부가 이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사실 워낙 큰 사업이라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5,500억 달러를 부담하고, 이와 별개로 유럽이 6,500억달러, 한국이 약 2,500억달러를 투자합니다. 모두 예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금액이고, 우리는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들어설 천연가스 발전소는 세계 최대급이 될 것입니다. 미국 곳곳에 지을 신규 원전 8기는 세계 최고의 원전 국가라는 우리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입니다. 원전의 안전성이 입증된 뒤 우리는 확실히 주도권을 잡았고, 이후 이 분야를 강하게 밀어 왔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보다 훨씬 늦게 출발했는데도 지금 세계 최고의 원전 국가가 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은 하루 약 40억 입방피트의 가스를 공급하게 되는데, 견줄 상대가 없는 규모입니다. 미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생산국이자 수출국이고, 이 파이프라인은 수출을 더 늘려 줄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지난 50년 동안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나도 어릴 때부터 언젠가는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이 놓일 것이라는 말을 들어 왔습니다.

이 사업 하나만으로도 미국 역사상 최대급 에너지 프로젝트가 될 것이고, 알래스카 주민에게는 엄청난 승리입니다. 즉시 최대 1만 2,000개의 건설 일자리와 1,000개의 운영 일자리가 생깁니다. 알래스카 가구의 연간 에너지 비용도 최대 1,500달러, 어쩌면 2,200달러까지 줄어든 것입니다.

자료: 국내외 주요 언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발언 전문

한국이 미국 에너지 기업을 키우기 위해 에너지 인프라에 2,000억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국부 (sovereign money)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방향, 곧 전 세계와의 불공정한 무역 관계를 바로잡고 다시 짜겠다는 구상 그대로입니다. 대통령 말씀처럼 2,000억달러와 15% 관세가 맞물린 사안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프로젝트들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 정부가 자금을 전액 조달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프로젝트는 모두 3건이고 규모는 2,000억달러에 육박합니다. 가장 큰 것은 1,200억달러 규모입니다. 미국 전역에 초대형 원전 8기를 짓는 데 1,000억달러, 여기에 예비비 200억달러가 들어갑니다. 이 원전들은 오하이오,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켄터키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원전 공급망을 구축해 미국이 세계적인 원전 수출국이 되도록 이 초대형 원전을 짓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행정명령으로 밝히신 내용이고, 오늘 우리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래스카 LNG 사업으로, 알래스카에 500억달러가 넘는 자금이 투자됩니다.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자원이 가장 풍부한 주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와 막대한 투자금은 알래스카의 엄청난 천연자원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실현할 수 없던 일입니다. 모두 말만 무성했는데, 협상과 무역 합의가 결합해 마침내 가능해졌습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 사업은 알래스카를 바꿀 뿐 아니라 지정학적 구도까지 바꿀 것입니다. 알래스카 주민이 먼저 가스를 쓰며 비용을 아끼고, 그다음에는 동남아시아 전역이 그 가스를 공급받게 됩니다. 동남아시아 전체가 가스와 천연자원 공급을 대통령과 미국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세계가 미국을 바라보고 미국과 협력하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텍사스에서는 220억달러 이상을 들여 6.5GW 규모의 가스 화력발전소를 짓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맺은 무역 합의의 틀, 그리고 그 합의를 이끌어 낸 미국 최고의 협상가인 대통령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나는 최고의 직업을 가졌습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내 평생 본 가장 멋진 협상을 성사시키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고, 그 과정이 정말 즐겁습니다. 한국과 협상할 때도 놀라운 장면을 봤고, 그 결과가 오늘의 성과입니다. 이 훌륭한 경영진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자랑스롭습니다. 이분들이 이 일을 실제로 추진할 분들입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이제 댄 설리번 의원이 이 계약을 성사시키라고 매일같이 전화로 재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국내외 주요 언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더그 버검 내무장관 발언 전문

이번 계약은 알래스카의 미래는 물론 석유를 둘러싼 지정학적 구도까지 바꿀 역사적 합의입니다. 이 전략적 국가안보 인프라 덕분에 알래스카 주민에게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하와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와이는 지금 중동에서 석유를 들여오지만 앞으로는 천연가스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내무부 관할인 괌, 아메리칸사모아, 마리아나 제도처럼 미군 기지가 있는 영토도 지금은 에너지를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는데, 알래스카에서, 또는 미군 5만 명이 주둔하는 동맹국 일본에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 일본까지는 물자가 도착하더라도 거의 30일이 걸리지만, 앵커리지에서 도쿄까지는 8일이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항로 대부분이 미국 영해를 지납니다. 한국으로 보내기에도 훨씬 가깝습니다. 필리핀, 대만 등 우리의 모든 동맹국이 미국 에너지에 의존할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었고, 그것은 국내의 번영과 대외적 평화를 뜻했습니다. 국가 기반시설 안보의 핵심인 이 사업은 번영과 평화라는 두 목표를 모두 실현해 줄 것입니다.

자료: 국내외 주요 언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발언과 확인된 사실

발언	Fact Check
트럼프: 텍사스 6GW 발전 시설에 최대 2,000억달러	2,000억달러는 3건 전체 규모. 텍사스 발전소는 223억달러 (한국 발표)
텍사스 용량: 트럼프 6GW, 러트닉 6.5GW	한국 발표 6,472MW (1단계 1,952MW, 2단계 4,520MW)
트럼프: 한국이 약 2,500억달러 투자	한미 합의는 3,500억달러 (전략투자 2,000억달러, 조선 1,500억달러)
러트닉: 알래스카에 500억달러 넘는 자금	백악관 당국자 540억달러, 한국 측 500억~600억달러, 미국의 당초 제시 670억달러
러트닉: 원전은 오하이오,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켄터키	한국 발표에는 부지가 없음. 부지와 일정을 구체화한 뒤 최종 결정
트럼프: 파이프라인 즉시 착수, 공사 3년	최종투자결정 전. 한국은 검토에 착수한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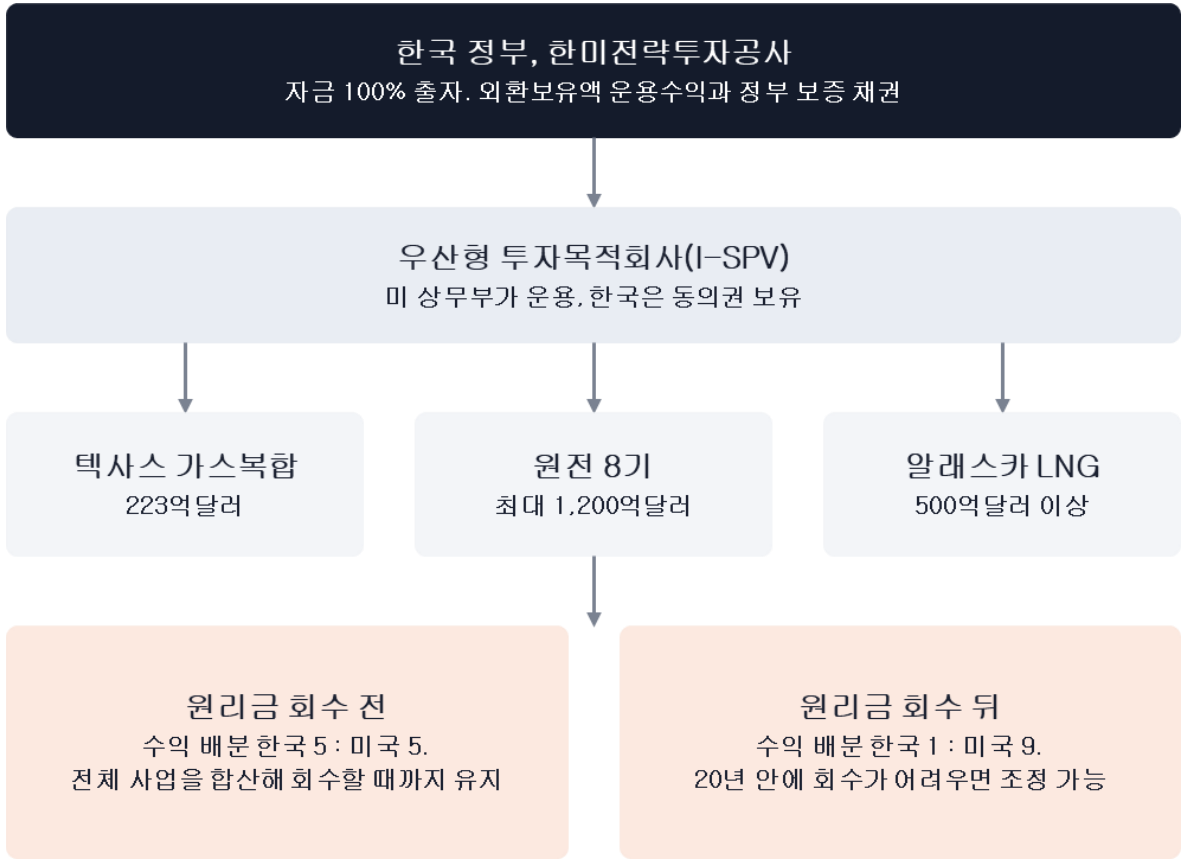
자료: 국내외 주요 언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 미국 발표와 한국 정부 입장의 차이 분명. 쟁점별 비교

쟁점	미국(트럼프, 러트닉)	한국(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
발표 성격	한국 정부가 최대 2,000억달러를 투자 자금은 한국이 전액 조달하고 부담	3건의 추진계획 발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사업에만 투자
텍사스 발전소	220억달러 이상, 6.5GW 건설	223억달러, 1호 프로젝트로 확정
원전 8기	1,200억달러, 4개 주에 건설	프레임워크 단계. 발표가 곧 원전 사업의 즉시 추진을 뜻하지 않음. 4분기 검증
알래스카 LNG	500억달러 이상 투자, 즉시 착수	검토에 착수한 수준.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하지 않음
관세	15% 관세 인하의 대가로 한국이 값을 치렀다	미국이 어떤 형태든 15% 수준 유지 입장 합의문 명시는 빠짐
자금	한국의 국부(sov​er​eign money)	연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 상한 원리금 회수 전 수익 배분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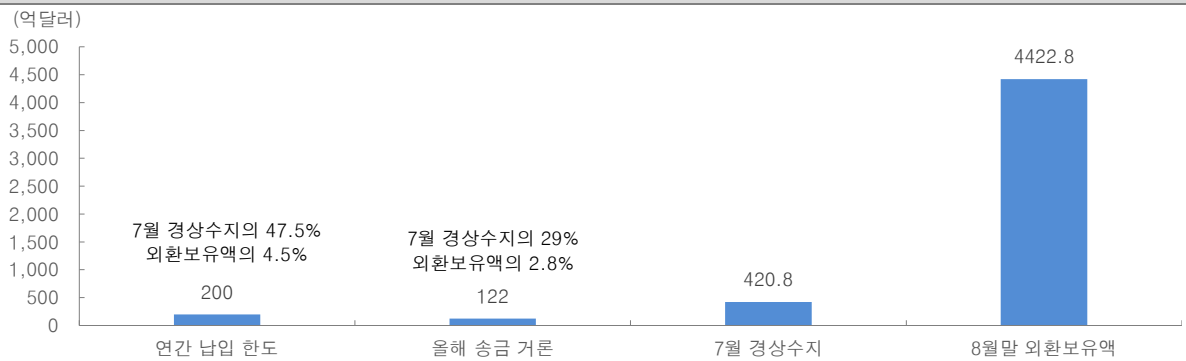
자료: 국내외 주요 언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7. 투자 구조: 사업 간 손익을 통산하고, 회수 뒤 수익은 미국이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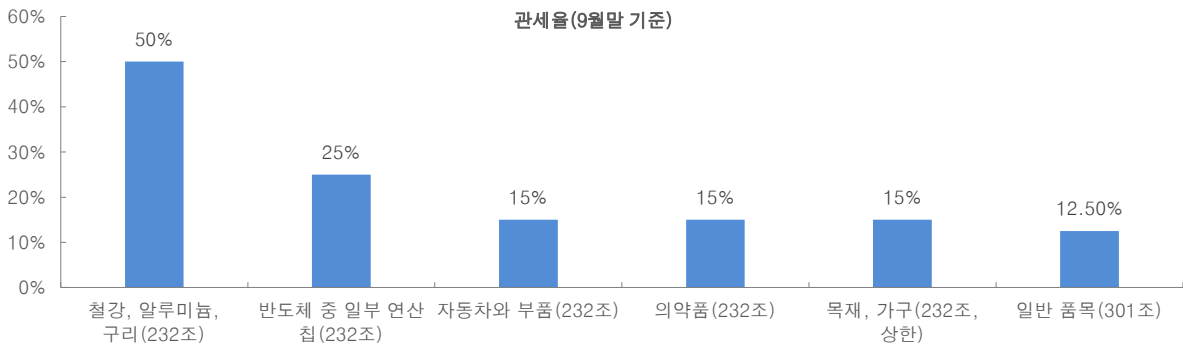
자료: 정책브리핑(2025년 11월 MOU 브리핑),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8. 달러 유출은 관리 가능한 규모. 중기 부담은 남아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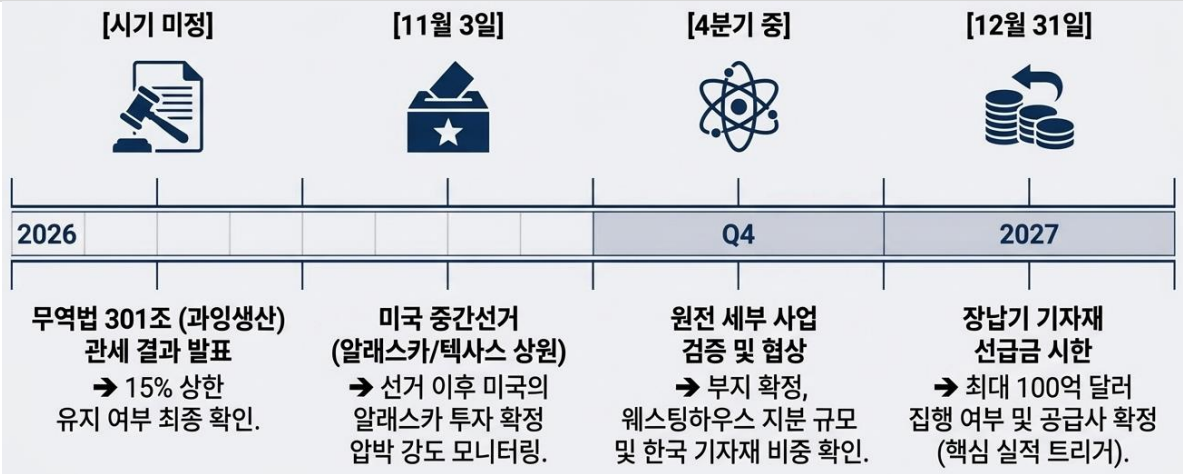
자료: 재정경제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9. 관세: 새 조치는 없고, 일반 품목 12.5%와 철강 50%는 그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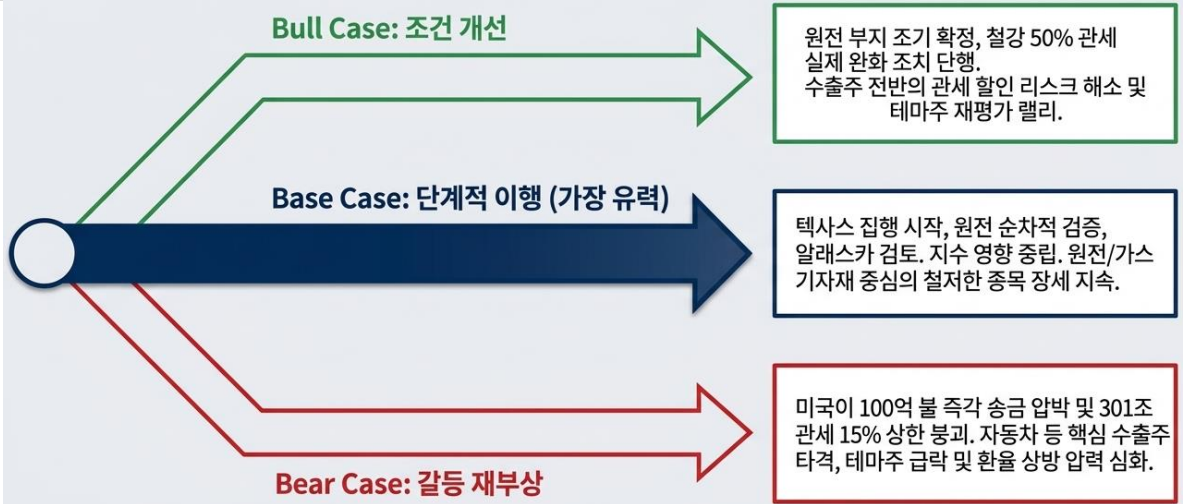
자료: 재정경제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 과잉생산 301조 추가 관세(약 10% 거론)는 미정. 유정용 강관은 반덤핑 9.80~29.94% 별도

그림 10. 향후 일정과 체크 포인트



자료: 국내외 주요 언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1. 향후 일정과 체크 포인트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2. 업종별 영향력 판단

업종	구분	설명
원전 주기기·기자재	수혜	AP1000 6기와 APR1400 2기. 8기 기준 7.4조~9조원 추정
가스발전 기자재	수혜	유일한 확정 사업. 가스터빈 3.6조~4.2조원 추정
원전 설계·시공	수혜	APR1400 첫 미국 진출, 웨스팅하우스 합의문 개정. 변동성 큼
LNG 밸류체인	수혜	포스코인터내셔널 구매와 지분 참여. 최종투자결정 전
강관·철강 소재	중립, 조건부	기대 선반영. 1단계 물량의 약 3분의 2는 유럽 업체
전력기기	중립, 조건부	간접 수혜. 직접 연결한 분석은 확인되지 않음
자동차 등 수출주	중립, 조건부	관세 인상 위험 완화. 과잉생산 301조가 변수
반도체, 조선, 방산	중립, 조건부	이번 틀 밖. 232조 반도체 관세 위험은 잔존
유틸리티	부담	알래스카 LNG 장기 구매 압력. 웨스팅하우스 지분 참여 부담
철강 대형주	부담	50% 관세 유지. 완화는 약속 단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